PETIT TRAVEL / GLOBAL TRAVEL / THE ISSUE / TALK ABOUT / BOOK TRAVEL

우수콘텐츠잡지 2022

Bar&Dining

바앤다이닝

TASTE THE HERITAGE

미식유산의 맛남

ISSN 1739 0443

B&D 공식지정 Blog

₩ 12,000

vol.227
November 2022

A Once-in-a-lifetime Experience at *The Nautilus*

다시 떠난 몰디브, 프라이빗 오션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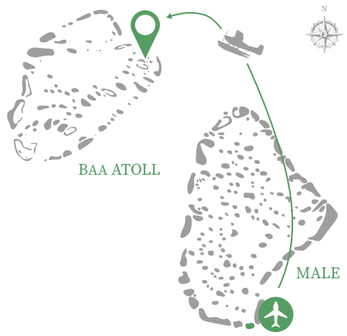
3년 만에 본격적으로 국경의 문이 열리고 해외로 떠나려는 움직임에 마음이 들뜬다. 다시 떠나는 여행지로 고심 끝에 선택한 곳은 인도양의 아름다운 군도, 몰디브다. 북적이는 도심보다는 한적한 해변에서 휴식을 즐기며 피로를 씻어내고 싶다면 프라이빗 리조트가 모여 있는 섬나라가 제격일 터. 눈부시게 맑은 바다와 휘황찬란한 석양의 풍경, 근사한 이색 다이닝, 릴랙스를 위한 스파는 물론 바닷속을 탐험하는 스노클링까지, 미식 파워 블로거이자 인스타그래머인 팻투바하가 담아온 몰디브의 이야기를 전한다.

WRITE&PHOTO **팻투바하** EDIT **박지형**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기고 싶다면 에메랄드빛 바다 위의 오션 하우스를,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가를 보내려면 해변의 비치 하우스를 선택할 것!
둘 모두 프라이빗한 전용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바다 위 은신처를 찾는다면

The Nautilus



보헤미안의 은신처를 표방하는 노틸러스는 단 26개의 프라이빗 오션 하우스를 갖춘 럭셔리 리조트다. 2018년 말 오픈 이후 불과 3년 만에 각종 여행 매거진의 주목을 받는가 하면, 럭셔리 트래블 매거진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CONDÉ NAST TRAVELER」가 선정한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2022' 최고의 인도양 리조트 톱20에서 6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노틸러스의 서비스는 몰디브의 관문 말레 공항에서부터 시작된다. 버틀러 서비스를 통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화 접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후 2시에 침대에서 조식과 샴페인을 즐기거나 새벽에 스파를 받는 등 무엇이든 가능하다.

팩투바하의 '최애' 아침 메뉴는 바로 샥슈카!
튀니지에서 유래한 샥슈카는 북아프리카와 이스라엘에서
흔히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메뉴라는 사실.

다채로운 개성의 레스토랑

Breakfast & Lunch

객실이 26개뿐인 리조트에서 과연 다양한 식사를 즐길 수 있을까? 걱정은 기우였다. 올데이 다이닝 <타임THYME>과 바다가 내다보이는 파인 다이닝 <제이툰ZEYTOUN>, 그릴 다이닝 <오카소OCASO>, 그리고 풀 사이드 바 <나이볼리NAIBOLI>까지 4곳의 레스토랑은 저마다 개성 있는 요리를 제공했다. 특히 <타임>에서의 아침 식사는 매일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최고의 명약이었다. 기본 뷔페 외에 즉석에서 주문 가능한 단품 메뉴가 인상적인데, 네 가지 스타일의 달걀 요리, 팬케이크, 토스트 등 클래식 메뉴부터 인도양과 터키의 아침 요리, 그리고 간단한 저지방 메뉴 등의 다채로운 요리 앞에서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타임>과 <나이볼리>에서의 점심은 신선한 굴과 핫윙, 스프링롤, 샐러드 등의 가벼운 한 입 거리 음식은 물론 버거, 샌드위치, 아시안 누들 및 파스타, 커리와 생선 요리까지, 한낮의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기에 부족함 없이 제공된다. 여기에 샴페인과 칵테일을 곁들인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것이 바로 맞춤형 BeSpoke culinary Journey!
노틸러스에서는 원하는 식사 무엇이든 가능하다.
해변에서의 근사한 디너를 놓치지 말 것.

밤하늘 아래 디너
Dinner

리조트의 디너는 맛과 서비스뿐 아니라 로맨틱한 분위기까지 전해야 하는 법. 그런 점에서 <제이툰>과 <오카소>는 탁월한 선택이다. 지중해와 중동의 풍미를 선보이는 <제이툰>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듯한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시그너처 레스토랑이다. 눈앞에 펼쳐지는 붉은 노을과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맛보는 샴페인 한 잔은 마음을 무장 해제하기에 충분하다. 생선 요리와 트러플을 곁들인 뇨키, 램샹크 등의 요리는 물론 소믈리에의 세심한 디캔팅이 돋보이는 레드와인, 다양한 리스트의 코냑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릴 레스토랑 <오카소>는 일본과 멕시코, 페루의 영향이 혼재된 데판야키를 선보인다. 스시와 사시미로 시작해 굴과 세비체, 과카몰레와 스시롤, 랍스터와 스테이크까지, 남미에서 동북아의 맛을 두루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다이닝 경험을 선사한다. 또 하나, 이곳의 '데스티네이션 다이닝' 서비스를 놓치지 말 것. 밤바다를 배경으로 셰프들이 해변에서 준비하는 바비큐는 몰디브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 중 하나다.

만약 몰디브에 다시 가게 된다면
그건 분명 일몰 때문일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이 다른 색깔로 물들어서
카메라를 놓을 수 없었다.

지나칠 수 없는 장관

Sunset

몰디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풍경을 묻는다면 단번에 노을을 꼽겠다. 노틸러스 리조트에서는 매일 저녁 선셋 칵테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라이브 포크 공연과 함께 샴페인 또는 바텐더의 시그너처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석양이 때로는 붉은빛으로, 때로는 노란빛으로, 때로는 보랏빛으로 하늘을 물들인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은 몰디브 여행의 하이라이트다.

스파 룸 바닥에 위치로 창을 내어
맑은 바다를 들여다볼 수 있다.
눈앞에는 눈부신 풍경이 펼쳐져 있고,
몸은 노곤하게 이완되는 시간.
피로가 말끔히 씻겨나간다.

피로를 씻어 낼 힐링 타임

Spa

온전한 휴식을 위해 리조트에서 꼭 경험해야 할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바로 스파다. 노틸러스의 스파 룸은 바다 위 파빌리온에 마련되어 있어 바다 풍경에 둘러싸인 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아로마틱한 오일을 이용한 유러피언 마사지는 온몸의 뭉친 근육뿐 아니라 복잡한 머릿속까지 이완하며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몰디브의 8-9월은 비가
많이 내리는 몬순 시즌이라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면
다들 아쉬움을 느끼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날
만타레이를 만날 가능성이 높답니다.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는 기적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길!

만타레이 서식지로 안내하는
노틸러스의 수상 액티비티 전문가.

만타레이와 함께 춤을

Manta Rays Dancing

따뜻한 해양에서 큰 몸을 펄럭이며 유영하는 쥐가오리, 만타레이는 다이버라면 꼭 한 번 만나기를 꿈꾸는 바다 생물이다. 몰디브의 하니파루만HANIFARU BAY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만타레이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6월에서 11월 사이 몰디브를 찾는다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다. 깔때기 모양 지형에 만타레이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눈처럼 쌓여 만타레이가 몰려든다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스쿠버다이빙은 금지되고 스노클링만 가능한데, 스피드보트를 타고 이동한 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가면 만타레이를 만날 확률이 높다. 만타레이가 플랑크톤을 흡입하기 위해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도는 모습은 검은 등과 새하얀 배가 교차하며 환상적인 장관을 선사한다.

노틸러스의 사람들
People

노틸러스 리조트를 돋보이게 하는 건 역시 그곳의 사람들이다. 객실이 26개에 불과한 작은 리조트에 스태프 인원만 3백여 명에 달한다고. 세계 각지 14개국에서 온 크루들은 대부분 인도양 및 아랍권의 대형 호텔 체인에서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다. 특히 노틸러스의 차별점은 개인화된 버틀러 서비스다.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매일 조식 시간에 방문해 그날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점심때 다시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저녁에는 그날 하루를 확인한 뒤 다음 날 일정을 안내하는 등 고객을 위한 세심한 케어를 실감할 수 있었다.

바텐더에게 배우는 칵테일
Cocktail Class

노틸러스는 수준 높은 칵테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세계 여러 도시의 호텔 바에서 경험을 쌓은 더니DUNI 바텐더가 있기 때문. 스리랑카 출신답게 실론 티 증류주를 활용한 시그너처 칵테일부터 클래식 칵테일까지 세심하게 서비스한다. 이번 기회에 칵테일을 배우고 싶어 칵테일 클래스를 신청했다. 1시간 동안 바텐더는 각 베이스에 맞춰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는지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태운 바나나와 럼을 믹스하는 법, 스모커 활용법 등 다양한 실전 지식을 전수했다. 이 밖에도 요트 다이빙과 바다낚시, 해변에서의 프라이빗한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칵테일 클래스는 배우면서 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막시기만 하던 칵테일을 직접 배우니 술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

팻투바하PAT2BACH

미식 파워 블로거로 시작해 약 20년간 인스타그램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 국내외 미식과 트렌드 경험을 기록해온 국내 대표 푸디. 공연, 음악, 사진 등 문화 전반에 조예가 깊다.

pat2bach